

‘최조국’ 황금콤비 뜬다

(최성국+정조국)



제1기 베어벡호 축구 태극전사 20명 확정 14일 아시안컵 대만 원정...세대교체 미뤄

오는 16일 대만과 2007 아시안컵축구대회 예선 원정경기를 치르는 1기 베어벡호(號) 태극전사 20명이 확정됐다.

김 베어벡 축구대표팀 감독은 10일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 엔트리 36명 가운데 대만 원정에 나설 20명을 발탁해 직접 발표했다.

골키퍼에 김용대(성남), 김영광(전남)이 뽑혔고 중앙 수비수에는 김진규(이와타), 김상식(성남), 김영철(성남), 오범석(포항), 측면 수비수에 조원희(수원), 장학영(성남), 송종국(수원)이 선발됐다.

미드필더에는 백지훈(수원), 김두현(성남), 김정우(나고야), 김남일(수원), 이윤용(서울)이, 스트라이커로는 안정환, 조재진(시미즈), 최성국(울산), 정조국(서울), 이천수(울산), 박주영(서울)이 발탁됐다.

아드보카트 감독과 함께 러시아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이적한 김동진, 이호는 소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1기 베어벡호는 2006 독일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아드보카트호 기존 멤버 15명이 포함돼 사실상 세대교체와 젊은 피 수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베어벡 감독은 이에 대해 “어린 선수들이 아직 필드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능력이 부족하고 전술적 상황 인식에서 기존 대표 선수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며 “이번에 선발하지 않은 19~23세 연령대 젊은 선수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참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벡 감독은 베스트 일레븐의 포지션을 골키퍼(2명), 중앙수비수(2명), 측면수비수(2명), 미드필더(3명), 스트라이커(3명)로 나눠 각각의 선발기준을 제시했고 포백(4-back) 포메이션인 4-3-3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베어벡호 대만전 엔트리에 들지 못한 선수들은 이날 해산했고 FA컵에 출전하는 FC 서울, 수원, 전남 선수들은 소속 팀으로 돌아갔다.

베어벡 감독은 “9일 훈련을 마치고 새로 대표팀에

FW	안정환, 조재진(시미즈), 최성국(울산), 정조국(서울), 이천수(울산), 박주영(서울)
MF	김남일(수원), 김두현(수원), 김정우(나고야), 백지훈(수원), 이윤용(서울)
DF	김진규(이와타), 김상식(성남), 김영철(성남), 오범석(포항), 조원희(수원), 장학영(성남), 송종국(수원)
GK	김용대(성남), 김영광(전남)

합류해 5일 간 훈련한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했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줬다”고 말했다.

A3 웹퍼먼스컵에서 우승한 울산 선수들과 J리그 3명이 포함된 베어벡호 1기 멤버 20명은 13일 낮 12시 파주 NFC에 다시 소집돼 14일 대만 원정을 떠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선발 기준은 축구지능·승부근성...”

베어벡 감독, 아시안게임·아시안컵 우승 목표

김 베어벡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만 원정 엔트리(20명)를 발표하면서 한국 축구의 장·단기 목표와 엔트리 선발 기준을 구체적

으로 제시했다. 한국 축구의 기본 컬러를 ‘투지(fighting)의 축구’에서 ‘생각하는 축구, 이기는 축구

(thinking, winning soccer)’로 바꾸겠다고 한 베어벡 감독은 대표 선수 선발 기준을 △축구 지능 △승부근성 △빠른 볼 처리 능력 △스피드와 페이스 조절 능력 △파워 등 5가지로 압축했다.

포지션별로는 중앙수비수는 몸 싸움과 위치 선정 능력, 리더십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측면 수비수는 기동성과 공격 지향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베어벡 감독은 대표팀의 목표를 ‘아시아 최강팀이 되는 것’으로 못박았고 단기 목표는 오는 12월 도하 아시안게임과 내년 7월 아시안컵 우승으로 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간활용 움직임 박지성이 최고”

맨유 퍼거슨 감독 극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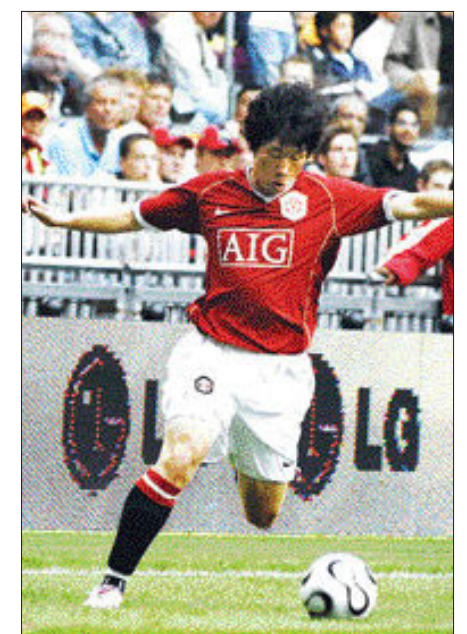
새 시즌 기대 한층 높아

“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임은 우리 팀에서 가장 뛰어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형 엔진’ 박지성(25)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퍼거슨 감독은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맨유와 스포츠용품 메이커 나이키 공동 개최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고 있는 유소년 축구대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 컵’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클리닉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박지성은 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임이 우리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다. 자신이 불을 갖지 않았을 때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패스의 움직임을 읽는 눈은 누구보다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지성은 이날 클리닉과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박지성은 맨유와 같은 유소년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선수인데 지도자로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기술적으로나 경기에 임하는 자세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주전 윙백 케리 네빌과 기자회견에 나온 퍼거슨 감독은 “큰 차이는 없다. 내 옆에 앉은 네빌은 박지성과 매일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거 때문에 잘 알 것”이라며 “박지성은 경기에 임하는 자세, 태도, 성격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특히 공간을 활용하는 그의 움직임이 최고 수준”이라고 재차 밝혔다.

실업 축구 N-리그 우승팀

2007년부터 K-리그 승격

한국프로축구연맹 합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07년부터 실업축구 N-리그(내셔널리그) 우승팀의 K-리그 승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06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올 시즌 N-리그 우승팀의 내년 시즌 K-리그 승격에 대한 기본 요건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그동안 N-리그 팀들의 K-리그 승격에 장애요인이 됐던 프로축구 발전기금(30억)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사회를 통해 프로연맹은 우선 K-리그가 18개 팀이 될 때까지 N-리그 우승팀의 승격과 신생구단 창단만을 시행하기로 했다.

K-리그 승격 조건은 N-리그 우승팀으로서 K-리그 신생구단 창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연맹이 정하는 각종 구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팀이 1위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승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승강된 N-리그 팀은 연령별(U-12, U-15, U-18) 유소년팀을 갖도록 했고, K-리그 팀들을 대상으로도 유소년팀의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K-리그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장기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또 FA(자유계약) 선수가 이적료 없이 해외에 진출한 후 만 33세 이하의 나이로 국내에 복귀할 경우에는 해외진출 직전 소속팀에 이적료를 주기로 결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도둑맞은 이승엽 “안타 되찾겠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안타를 도둑맞은 이승엽(30)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식 제소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과 네티즌들도 심판의 오심에 발끈하고 나섰다.

스포츠톨과 낫츠스포츠 등 일본 언론들은 10일 기요타케 요미우리 구단 사장이 전날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경기 9회에 발생한 이승엽 타구에 대한 판정을 센트럴리그 사무국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승엽은 요코하마전 9회 무사 2,3루에서 좌익수 앞에 원바운드로 떨어지는 타구를 날렸으나 2루심이 바로 잡은 것으로 판단, 아웃 판정을 내렸다.

하라 다쓰노리 감독이 뛰어나와 항의했지만 심판 판정은 뒤집어지지 않았고 화가 난 이승엽은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뒤 펜스를 발로 차며 강력하게 불만을 표실했다.

TV 재생화면을 통해 이승엽의 타구는 명백한 안타로 확인됐으며 기요타케 사장은 “명예와 기록을 되찾기 위해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신문들은 이승엽이 헬멧과 장갑을 그라운드에 집어던지



‘승판’ 화났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 선수가 9일 일본 도쿄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즈와의 원정경기 9회초 무사 2, 3루에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쳤으나 외야플라이로 아웃 선언이 내려지자 덕아웃에 들어가서 심판의 오심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요미우리 “명예 회복” 공식 제소

일본 언론·네티즌도 오심 ‘발끈’

고 펜스를 3번 발로 걷어찬 뒤 한국어로 버럭 ‘어째서’라고 외치며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이날 경기에 대해 “이승엽이 또 다시 미묘한 판정에 격노했다. 원바운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공이 좌익수 플라이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계열의 스포츠신문 ‘스포츠투치’는 한발 더 나아가 당시 판정을 명백한 오심으로 단정지었다. 이 신문은 ‘이승엽의 좌전안타가 오심 때문에 사라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심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승엽의 좌전 안타가 플라이로 처리됐다. 이승엽의 타구는 원바운드로 잡힌 것으로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일본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야후 재팬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심판은 바보다’ ‘심판을 6명으로 늘려라’는 내용을 비롯해 심판의 오심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바보같은 심판들이 많아서 승판에 대한 텃세가 계속된다”면서 “승판이 일본에서 야구하는 것은 다른 선수보다 장애물이 많은만큼 다음 시즌에는 미국으로 가라”며 메이저리그행을 권유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3안타

LA 에인절스전 승리 이끌어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바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한 경기 3안타를 뽑고 첫 도루까지 성공하며 필멸 날았다.

추신수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 우익수 6번 타자로 선발출장해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24경기만에 한 경기 3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다.

또 시즌 타율을 0.263에서 0.310(42타수 13안타)으로 대폭 끌어올려 처음으로 3할대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추신수는 지난 달 27일 시애틀에서 클리블랜드로 이적한 뒤 타율 0.387(31타수 12안타)의 맹타를 휘둘러 8경기 연속 출루하며 메이저리그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추신수는 2회 말 빅터 마르티네스, 자니 파랄타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2, 3루의 기회에서 상대 우완 존 레기(28)가 초구에 던진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통타, 유격수와 3루수를 가르는 안타를 때려 3루 주자 마르티네스는 홈으로 불러들이며 첫 타점을 올렸다. 계속된 2사 1, 2루에서 추신수는 1번 그레디 시즈모어의 내야안타로 3루를 밟은 뒤 유격수 송구 실책을 틈타 홈까지 내달려 득점에도 성공했다.

추신수는 4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쳤으나 5회 세번째 타석에서는 1사 1루에서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8회 1사에서 깨끗한 우전안타로 출루한 뒤 2사 후에 2루를 홈쳐 3번째 도전 끝에 메이저리그에서 첫 도루에 성공했다.

클리블랜드는 9회안타, 7타수삼진으로 완봉승을 거둔 제이크 웨스트부룩(29)의 역투에 힘입어 LA 에인절스를 4-0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